

전주, 노후 상수관 제대로 손본다

시, 정밀조사대상 우선지원지역 선정·국비 6억7000만원 확보

내년까지 9억5700만원 투입해 노후상수관로 현황·정밀조사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더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는 내년 말까지 총 9억5700만원을 투입해 전주시 노후 상수관로 571km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전주시가 인건 수돗물 사간을 계기로 국가 주도의 상수관망 구축 및 노후관 정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환경부의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대상 우선지원지역으로 선정돼 국비 6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2억87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가능해졌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노후상수관로 정

밀용역사업이 국가 주도 사업의 수행방법 및 전국에 같은 기준의 표준화된 기준 마련을 위한 것인 만큼 오는 11월 중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용역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를 근거로 국비 및 시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노후상수관로 교체 등 지속적으로 상수관로를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의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대상 우선지원지역 선정은 전국 17개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우선 지원해 추진되며, 시행 첫해인 올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세종 등 7개 특·광역시와 전주시를 포함한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환경부는 내년 이후에는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공건축 현장포럼

전주시가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공건축 포럼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해 배워나가고 있다.

시는 29일 공공건축 관련 부서 직원 30여명과 지역 건축사 10여명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시 일원에서 공공건축 5차 현장포럼을 개최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영주시 공공건축물을 답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수영장 △대안 복지훈련장 △풍기읍사무소 등 영주시의 우수 공공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의 삶과 소통할 수 있는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답사에 앞서 신승주 영주시 도시건축관리과장으로부터 공공건축 우수사례로 꼽히는 영주시의 공공건축 조성사례와 지역 공공건축이 추구해야할 공간 및 디자인 방향에 대한 현장강연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함께 참여한 한 지역 건축사는 "전주시의 공공건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오늘 보고 배운 사례처럼 전주시에라도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이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씩씩튼튼 줄넘기 한마당 문화축제 참가한 어린이들이 29일 전주비전대학교 체육관에서 합체게 도출달기를 하며 선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까지 힘차게... 줄넘기 한마당 문화 축제

전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비전대 체육관리운동장서

전주시 민간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문용식)는 29일 비전대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씩씩튼튼 줄넘기 한마당 문화 축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유아 줄넘기 스피드30초 경기 △양궁장전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진행된 단체 줄넘기 등을 통해

원장 등 우수보육시설 운영자와 보육교직원 15명에게 표창도 수여했다.

문용식 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씩씩튼튼 줄넘기 한마당 문화 축제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 유아들이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는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놀이를 통해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래를 이끌어갈 유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모든 보육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서화동, 통합돌봄 어르신에

형광등 리모컨 지원키로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동서화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르신들에게 형광등 리모컨을 지원한다.

완산구 동서화동(동장 노미숙)은 사회적협동조합 새샘노인복지센터(이사장 김용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자 등 지역 어르신 23명에게 LED형광등을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 스위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LED리모컨스위치 지원은 어르신의 만족도가 높았던 동서화동 상반기 특화사업으로, 재차 추진하지는 하반기 동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주민센터는 업무협약을 맺은 사회적협동조합 새샘노인복지센터(구 행복도담사회적협동조합)의 협조를 얻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대상자를 비롯해 독거어르신 등을 선정할 후 사업을 재차 추진키로 했다.

LED리모컨스위치 설치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만큼, 이번에도 노인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새샘노인복지센터의 책임자 박 훈 출동대가 방문설치와 하자수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신규 대상 어르신의 방문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상반기에 설치된 대상 중 하자가 발생한 집의 방문수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표창

전주 자봉센터 황의욱 이사장 의회사무국 전종표 팀장 등 14개 시·군 28명 수상받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북 지방자치발전예 공헌한 14개시도 28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선정한 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을 시군의회 별로 수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전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과 전주시 의회사무국 전종표 팀장을 선정했다.

황의욱 이사장과 전종표 팀장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힘써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지방자치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전라북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9일 제7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전북 지방자치발전예 공헌한 14개시도 28명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는 전북 지방자치발전예에 기여한 유공자로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황의욱 이사장과 전주시 의회사무국 전종표 팀장을 선정했다.

협의회장인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주시신 도내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앞으

로도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암생존자들에게 인생2막 설계 도움

전북대병원,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진정한 행복' 특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암치료를 마친 암생존자 및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들에게 인생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창열)와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소장 김인수)가 함께 개최한 이번 행사는 28일 오후 2시 분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김병조 초빙 연사의 체험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들에게 배려·건강·행복 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고 인생의 좌표를 제시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전북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 임창열 센터장은 "전북지역의 암 치료를 마친 암생존자 및 구직을 희망하는 신중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전북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는 수술·항암·방사선 등의 암치료가 끝난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적 역할을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 관리를 위한 교육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대상 생애경력설계부터 퇴직(예정)자를 위한 전직스쿨프로그램과 재도약 프로그램,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맞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남천 병원장은 "뜻을 갖고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분들의 희망과 열정을 응원한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버려지는 빗물 재이용 시범마을 조성 본격화

전주시, 팔복새마을 대상 이달 중 착공 예정

전주시가 완산구 서화동예술마을에 이어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덕진구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팔복새마을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팔복새마을을 일원으로 대상으로 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서화동 예술마을에 이어 환경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전국 두 번째의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빗물자원화 사업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 4억3400만원을 투입해 팔복동 3동과 16동 지역의 건물 39개소에 빗물이용시설과 관련시설을 구축, 친환경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물 순환체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팔복새마을에는 가옥과 건물 등 39개소에 1개소당 평균 저장용량 2톤 규모, 총 65톤 규모로 핵심 시설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이 구축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은 향후 주민들이 조경과 화단, 텃밭, 옥상 녹화, 벽면녹화, 청소, 세탁(세탁), 화장실, 마당살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팔복새마을을 중심부에 위치한 백수경로당 앞에는 도로개설 잔여부지를 활용해 빗물유출 및 비점오염 저감 효과가 있는 아담한 소형 빗물정원이 조성돼 빗물마을의 홍보·교육 및 견

학체함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빗물이용시설과 빗물정원 등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부터는 견학체험 시설장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어린이와 학생 등 방문객들에게 직접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빗물시설 전문업체와 1사촌 자매결연을 통한 '빗물추치의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시범마을 주민들이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빗물시범마을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해 팔복새마을 내 단독주택 33개소와 근린상가 1개소, 종교시설(교회) 1개소, 공공시설 4개소 등 총 39개 건물주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참여 주민들의 신청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를 완료했다.

오길중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연내에 치질 없이 준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만들어 팔복새마을이 버려지는 빗물을 지원하고 이용하는 자율적 관리역량과 기구한 대응력을 갖춘 혁신적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계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

전주지역 청년들은 내년 초부터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주시가 △전주형 청년수당 사업인 '청년희포 프로젝트' △청년소상공간 비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상상놀이터' △취업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무료 면접장대여사업' 등 전주형 청년지원정책과 취업·창업·문화·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29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용역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 창립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전주시장

과 시의원, 교수,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인사 20명으로 구성돼 연 2회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해 조정·협력하고 있다.

이날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청년 수요자 입장에서 그간 구축해온 온라인 플랫폼을 직접 시연해보며 이용 시 불편한 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은 전주지역 청년들이 청년희망도시 활동을 통해 정책 반영을 요구한 것으로, 전주시가 추진 중인 취·창업, 복지, 주거, 소통·협력, 문화·교육 등 각 분야의 청년정책과 타 유관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도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시는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 '청년희포' 등 △사업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는 접수시스템과 사후관리 체계 등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정보와 생활 요소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